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26.(목) 석간 배포 2026. 11. 25.(수)

프레시안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

여성 청소년의 자해 경험과 현실 조명…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 제기

11월 26일(목),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시상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 이하 재단)과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 이하 협회)는 '2026년 4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의 기획 보도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을 선정, 11월 26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4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작인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은 여성 청소년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해 문제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룬 보도다. 자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청소년 자해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자살위험에 앞서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상혁 기자는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성 청소년들의 위기 실태를 알리고 싶어 기사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용기 내 목소리를 내어 준 자해 경험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가가 소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재단 정윤순 이사장은 "청소년의 자해는 그 자체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신호이며,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보도를 통해 여성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한편, ‘생명존중 우수보도상’은 재단과 협회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 언론 보도를 분기별로 선정·시상하는 상으로, 201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두 기관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보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붙임> ‘2026년 4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시상식 사진

담당 부서	인식개선사업부 홍보기획운영팀	책임자	부 장	위준영 (02-3706-0410)
		담당자	팀 장	김은영 (02-3706-0451)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위한 언론인의 약속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붙임 | **‘2026년 4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시상식 사진**



‘2026년 4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시상식이 1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신은정 본부장,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

참고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일환으로 **자살 사건 보도 과정**에서, **긴급도움 요청**과 관련하여 삽입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각 **언론사 내부에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 문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 QR코드를 통해 종이 없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으로 연결되며,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